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관형어에는 관형사뿐만 아니라 체언 단독, 체언과 조사의 결합,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용언, 이러한 용언으로 구성되는 관형절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중, 관형절은 안긴문장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구실을 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는’,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형절은 안긴문장 속에 생략되는 성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누어진다. ㉠ 관계 관형절은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분이 빠져 있는 관형절인 반면, 동격 관형절은 한 문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절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이것은 [내가 어제 함께 책을 읽은] 영수에게 주었다.  
 (2) -(가) 민수는 [물이 맑다는] 생각을 했다.  
 (나) 진희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억한다.

(1)에서 관형절 “내가 어제 함께 책을 읽은”은 본래 “내가 어제 영수와 함께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으로,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 ‘영수’가 빠져 있다. 여기서 생략된 명사 ‘영수’는 안긴문장 속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관계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있는 체언은 안긴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2)에 쓰인 관형절은 모두 동격 관형절이다. (2)-(가)의 명사 ‘생각’과 (2)-(나)의 명사 ‘사건’은 관형절 안에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없다. 또한 동격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이 완전한 문장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긴 동격 관형절과 짧은 동격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2)-(가)에서는 “물이 맑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반면, (2)-(나)에서는 “(진희가) 지갑을 잃어버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였다. 즉, (2)-(가)는 관형절에 쓰인 종결어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 긴 동격 관형절이고, (2)-(나)는 관형절에 종결어미가 쓰이지 않고 바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 짧은 동격 관형절이다. 이때 긴 관형절은 동격 관형절에서만 나타난다.

1.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두 마리의 작은 새가 즐겁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b.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이다.  
 c. 모든 나라가 온 힘을 다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① a에서 ‘작은’은 새라는 체언을 꾸며주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는 보기 힘들군.
- ② a에서 ‘두’는 ‘마리’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활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c의 ‘모든’과는 달리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야.
- ③ b에서 ‘내가’는 ‘나’라는 대명사와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서 동시에 고향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군.
- ④ b에서 ‘살던’은 체언을 수식하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형이 사용된 관형어로군.
- ⑤ c에서 ‘환경’은 체언이 관형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b)의 ‘꽃’과 동일하군.

2. ㉠~㉢에 따라 <보기>의 관형절을 구분한 것이 적절한 것은?

—<보 기>—

㉠ 성규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 여기서부터 넓은 밭이 펼쳐져 있다.  
 ㉢ 그 사건은 지난주에 언론에서 밝힌 사실과 달랐다.  
 ㉣ 이 맛있는 햄버거들을 한 번에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   |         |      |      |
|---|---------|------|------|
|   | (a)     | (b)  | (c)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빗뚫다 → [빔뚫타]  
 ㉡ 집안일 → [지반닐]  
 ㉢ 흙뭉치 → [홍뭉치]  
 ㉣ 굳히다 → [구치다]  
 ㉤ 괄약근 → [과략근]

- ① ㉠: 음운 변동이 두 번 발생하여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었다.
- ② ㉡: 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음운의 개수가 하나 증가하였다.
- ③ ㉢: 음운 변동이 두 번 발생하며,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④ ㉣: 교체와 축약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 ⑤ ㉤: 음운 변동이 두 번 발생하며,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사동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남에게 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동문은 주체가 되는 주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학 생: 그렇다면 사동문과 대응되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사동문과 대응되는 것은 주동문이에요. 주동문은 주체가 되는 주어가 직접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 주동문은 사동문과 서로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이나 ㉢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도 있어요. 한편,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기도 한답니다.

- ① '동생이 책을 읽는다.'는 ㉠에 해당하며,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이 하나 줄어든다.
- ② '마을로 가는 길이 넓다.'는 ㉠에 해당하며,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은 동일하다.
- ③ '취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는 ㉠에 해당하며,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은 동일하다.
- ④ '박세리가 이름을 날렸다'는 '날씨가 풀렸다'와 마찬가지로 ㉡에 해당한다.
- ⑤ '지영은 따뜻한 방에서 눈을 붙였다.'는 '그 증인은 끝까지 진실을 숨겼다.'와 마찬가지로 ㉢에 해당한다.

5. <보기>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몇몇 경우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국어와 다른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음운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밭', '뜰', '쏘리'	'밭', '뜰', '꼬리'
㉡	짜히, 짜해 짜마다	땅이, 땅에 땅마다
㉢	수른, 누는 수저는, 빼는	술은, 눈은 수저는, 빼는
㉣	사르미, 식미	사람이, 샘이
주격 조사	쇠, 부테	소가, 부처가
㉤ 용언+용언	'빌먹다' '죽살다' '듣보다'	'빌어 먹다' '죽고 살다' '듣고 보다'

- ① ㉠: 중세 국어에는 어두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 ② ㉡: 중세 국어에는 결합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명사가 있었다.
- ③ ㉢: 중세 국어에는 결합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조사가 있었다.
- ④ ㉣: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에 '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 ⑤ ㉤: 중세 국어에는 두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이 결합하여 한 단어로 쓰이기도 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없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  
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  
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이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  
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  
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다)

시인은 종종 시 속에 자연 현상을 가져와 말하고자 하는 바  
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곤 한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을  
형상화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사의 한 면모를 그리기 위해 자  
연 현상에 빗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자연에서 얻은 진  
리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면서 형이상학적인 깊  
이를 얻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앞  
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하려는 목적성을 띄기 때문  
에 보다 세태와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이처럼 상징적인 대상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예컨대 시인은 대상을 탐구하  
는 과정에서 설명조의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을 반복적으  
로 사용함으로써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대  
조되는 듯 보이는 두 현상의 충돌을 통해 더욱 심화된 의  
미를 빚어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설이야말로 의미가 끊  
임없이 생성되는 시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6. (다)의 관점에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절대자적 존재인 '누구'를 느끼고 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② (가)는 인간사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 현상을 동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현상 그 자체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③ (나)는 적당한 바람과 물을 만나 누룩이 술로 빚어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주제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나)는 누룩을 통해 절대적인 존재자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⑤ (나)는 누룩이 발효되는 모습을 통해 인내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설교하려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7. [A]를 참고하여 (가), (나)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물음을 거듭 던짐으로써 '누구'에 대한 회의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② (나)는 누룩이 발효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물음을 거듭 던짐으로써 의문을 해소하고 시적 긴장을 이완한다.
- ③ (가)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탐구가 형식적이고 고정적인 행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나)는 대상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절대적 힘을 '약한 등불'로 표현함으로써 겸손한 태도와 동시에 역설적인 의미를 빚어내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성부는 197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난 민중시의 흐름 속에서 민중지향적 서정시의 기반을 닦은 시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시는 시대의 당시 독재 정권을 상징하는 어둠에 대한 보고서이자 동시에 그 어둠을 참고 이겨내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성부의 작품에서 연대의식에 의한 투쟁이 강조되고 민중에 대한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① (나)는 민중이 어두운 시대에 의해 '삭고 삭아 부서지지' 않으려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② (나)의 '알맞은 바람'과 '좋은 물'은 민중과 뜻을 함께 하는 존재들로서, 민중과 연대한 당시의 정부를 상징한다.
- ③ (나)의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은 대의를 위해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④ (나)에서 누룩의 '죽음' 이후 만들어지게 될 술은 민중이 이루어낸 긍정적인 역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누룩 한 덩이가 가지고 있던 '무력함'은 바람직한 미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이 강조된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월(正月)의 농기 닦고 이월(二月)의 밭출 간다  
장정은 들의 놀고 노약은 집의 잇서  
지금의 게으른 즈부(子婦)\* 신칙(申飭)한다\*

<제1수>

좌슈(左手)의 잡은 춘광(春光) 우슈(右手)로 옮겨 너여  
농부가 흥을 계워 슈답(水畓)의 이종(移種)하니\*  
아마도 성세낙민(聖世樂民)은 이뿐인가

<제3수>

근고(勤苦)하여\*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무러 근심터니  
유연작운(油然作雲)\*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는 성화(聖化)신가\*

<제5수>

일년을 수고하여 빅곡이 풍등(豐登)하니\*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어이허리  
아마도 국티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은 금세(今世)신가

<제7수>

그더 농스 적을 적의 너 추수(秋收)인들 변변헐가  
져 건너 박부즈 집의 빛이나 다 감홀는지  
아마도 가난헌 스흘은 가을도 봄인가

<제9수>

- 이세보, 「농부가」 -

- \* 즈부(子婦) : 며느리.
- \* 신칙(申飭)한다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한다.
- \* 이종(移種)하니 : 비의 모종을 옮겨 심으니.
- \* 근고(勤苦)하여 : 마음과 몸을 다하며 애써.
- \* 유연작운(油然作雲) :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름.
- \* 우순풍조(雨順風調) : 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
- \* 성화(聖化)신가 : 임금의 덕으로 교화함.
- \* 풍등(豐登)하니 : 풍성하니.
- \*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9.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농촌 생활의 어려움을 다양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매 수가 거듭될수록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농사짓는 시기와 그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계절마다 변화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농부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비판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을과 봄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변변찮은 추수 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종장의 마지막 음보를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농부들에게 농사에 힘써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11.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오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어든 네 논 점 밷어 주마  
울 길히 썩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제13수>

- 정철, 「훈민가(訓民歌)」 -

- ① 윗글과 <보기>는 청유문을 통해 농부들을 독려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농촌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보기>와는 달리 윗글은 농부에 대한 시적 화자의 교화적 태도가 강조되어 있다.
- ④ <보기>와는 달리 윗글에서는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⑤ 윗글과는 달리 <보기>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



들, 이마를 비비대며 길 쪽으로 늘어서 있는 추녀들, 좁고 어둡고 질척한 그 많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길바닥들, 온갖 말씨와 형형색색의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 얼굴도 손도 발도 죄다 까맣게 탄 아이들…… 나는 자꾸만 어지럼증을 탔고, 급기야는 속엿것을 울켜 토해놓고 말았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빛 토사물이었다.

세간살이들을 대충 들여놓은 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른 저녁을 먹었다. 아니 그것은 때늦은 점심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 도시에서 가진 첫 식사였다.

밥은 오렌지물을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시궁창 바닥에다가 한 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놓은 펌프물이니 오죽할라구요……”

어머니는 아예 손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

(중략)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다가왔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하기가 새삼 놀랄 이유도 없을 게다. 지난 한철 내내 지겹도록 그녀의 얼굴을 보아왔을 테니까 말이다. 그는 둘둘 말아가지고 온 가마뱀기를 확 펼쳐 그 초라한 주검을 덮었다.

충분하다. 너무나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는 주검이어서 가마뱀기 한 장만으로도 넉넉히 가릴 수가 있었다. 그녀가 이승에서 잠시나마 차지할 수 있었던 공간도 그보다 크지는 않았으리라. 머리칼도 발끝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돌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하늘은 여전히 음산하게 얼어붙어서 햇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다. 칼날 같은 바람이 가슴에 와 박혔다. 갑자기, 돌아가야 할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바람 속을 떨면서 걸으며 나는 무슨 생각인가를 열심히 했다. 골이 지끈지끈 뻘뻘. 온갖 기억과 환상 가운데서 맨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몇 알의 썩은 사과였다. 비로소 상념의 갈피가 잡혔다.

머릿속에서 찬바람이 일 만큼 아주 명징한 의식으로써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썩은 사과를 먹고 있었다. 불결한 손가락 끝으로 항상 썩은 부위만 열심히 후벼서 파먹곤 했었다. 그 밖의 다른 아무것도 그녀는 취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물밖엔 거의 아무것도 취하지 않듯. 메마른 헛구역질 같은 것을 나는 심하게 느꼈다.

저 작고 초라한 주검을 남긴 채 그녀는 이제 공원을 떠났다. 우리들의 헐벗은 공원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발치쯤에 버려져 있던 함지박과 두어 알의 사과를 나는 또 생각했다.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썩은 열매를 더 이상 취하지도 팔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심한 헛구역질을 느꼈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1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핍한 현실로 야박해진 인간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중심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반응을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극에 달한 허기와 추위를 몽환적인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도시적 삶의 면면을 드러내며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에 대한 인물의 후회를 전달하고 있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 큰 슬픔과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 ② 이사를 온 후 ‘나’는 고향에 대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하며 멀게 느낀다.
- ③ ‘어머니’는 도시에서 펼쳐질 삶을 두려워하면서도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모성애를 드러낸다.
- ④ 공원에서 죽은 ‘그녀’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갔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 ⑤ 공원에서 죽은 ‘그녀’를 기리며 ‘나’는 버려진 두어 알의 사과를 가져온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에는 ‘나’가 구역질을 느끼는 두 장면이 인상 깊게 묘사되어 있다. ‘나’의 첫 구토는 이물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익숙한 곳에서 나와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육체적 반응이며, 다가올 미래를 쉽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이다. 반면 ‘나’의 두 번째 구토는 그 동안의 도시 생활을 통해 메마른 헛구역질로 간접화된 채 나타난다. 썩은 사과를 팔던 여인의 주검을 보면서, ‘나’는 공허했던 과거와 여전히 전망 없는 미래에 대한 육체의 참담한 반응으로서 심한 헛구역질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도시에서 느끼는 기대 혹은 불안은 색깔을 통해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 ① 도시로의 이사는 ‘나’에게 새로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익숙했던 것들까지도 낯설게 느껴지게끔 만들었다.
- ② ‘오렌지빛’은 ‘나’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도시의 현대문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빛깔이다.
- ③ 새로운 풍경에 둘러싸여 ‘맥폴린 하품’을 하는 것도 구토와 마찬가지로 낯선 것에 대한 불안이 깔린 육체적 반응이다.
- ④ 주검을 대하는 ‘공원 관리인’의 무심한 태도는 ‘나’의 구토가 메마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녀'와 '어머니'의 공통된 모습은 '나'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승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윤지경을 눈여겨본 귀인 박씨의 청으로, 종종은 지경에게 연성 응주와 혼례를 하교한다. 이에 지경은 응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지경이 이후로는 밤낮으로 찾아오니, 최 참판과 연화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 승상이 알고 지경을 불러 꾸짖고 응주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는 법인지라. 지경이 날마다 최씨에게 가니 응주 어찌 모르리오. 부마\* 내당에 들어간 때 응주 가로되,

“㉠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聘禮)\*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신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씨를 얻어 고혹(蠱惑)되었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오.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신여김이 심하뇨.”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 내 할 말을 응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응주와 화락하리오. 응주 만일 최씨를 청하여 한집에서 화목하기를 아황과 여영\*을 본받을진대, 최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러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도다.” 응주 웃으며 가로되,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深宮) 처녀로 어찌 알았으리오. 상명으로 부마의 아내가 되어 나온 지 일 년이나, 천대가 태심하여 행로(行路) 보듯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여염 사람이 부부간에 하사하되 응주 너무 지극 공경하여 구실 삼아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편치 못하고 꿇어앉으니 이밖에 더 공경하리오.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 아니 하실지라. 본대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 하나니라.”

하고 크게 웃고 소매를 떨치고 나오더라.

응주 종일토록 울더니, 그 후 입궐하여 박씨에게 일일이 고하고 설위하니, 박씨 대로하여 상계 이대로 아뢰어,

“㉢ 최씨를 없이 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 청하니, 상이 윤지경을 불러 책망하여 가로되,

“네 아낸즉 응주요 여염 필부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 이어늘, 네게 최씨와 퇴혼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위법하는 [A]가. 또한 사위의 도리가 있고 장인 장모도 처부모(妻父母)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훼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오.”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사죄하여 가로되, “하교 이러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신이 외람하오나 평소 품은 생각을 세세히 전달하리이다. 참판 최홍일은 신의 아버 종매부\*라. 어려서부터 아버의 형제지의로 신이 부형같이 공경하

고 홍일이 신을 자식같이 사랑하옵더니 조강지처 윤씨 작고 하옵고 후처 이씨 들어와 딸을 낳으니, 자못 총명하고 자색이 빼어나오니, 아버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奠雁)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합친을 못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응주를 맡기시니 신이 과연 응주의 탓이 아닌 줄 아오니, 최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사오니 어찌 비상지원(飛霜之怨)\*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응주를 대접하고 최씨를 다른 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교배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 하지만 지엄하신 명령이 두려워 홍일이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나, 홍일을 속이고 가만히 가서 만나 온 일이 있사옵나이다. 반면 응주 신에게 온 지 겨우 일 년에 남편의 뜻을 모르고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

상이 탄식하여 가로되, “㉣ 네 나이 어리되 소견이 높아 급암(汲黯)\*의 직간(直諫)을 가졌도다. 그러나 응주는 내 딸이라. 조금도 박대하지 말라.” 하시니라.

(중략)

㉤ 박 씨는 지경이 미워 바로 보지 아니하니, 지경 또한 바로 보는 적이 없더라.

이러구러 최 씨 삼년상이 지나니, 지경이 설움을 이기지 못하여 최부에 가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며 혼잣말로 이르되, ‘중적은 의구하되 사람이 없으니 이 설움을 어찌 견디리요.’ 두루 생각하니 심회 비감함을 정치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응주는 갈수록 싫고 최 씨는 오랏수록 잇을 길 없으니, 이십 세 남자가 일생 홀아버로 어이 견디리요.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 부마 : 임금의 사위.
\* 빙례 : 혼례(婚禮).
\* 아황과 여영 : 중국 순임금의 두 왕비.
\* 종매부 : 사촌 여동생의 남편.
\* 비상지원 : 뼈에 사무치는 원한.
\* 급암 : 중국 전한 무제 때 직간을 잘하던 신하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응주는 자신의 신분을 들어 윤지경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② ㉡ : 지경은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이 부당함을 들어 응주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③ ㉢ : 박씨는 문제의 원인이 지경이 아닌 최씨라고 판단하고, 최씨만을 벌할 것을 청하고 있다.
④ ㉣ : 지경의 지적이 옳음을 인정하면서도 왕의 권위로써 응주를 박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⑤ ㉤ : 왕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경과 박씨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에서는 남녀의 혼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혼사 장애는 '이별의 동기-분리와 시련-귀환과 재결합'의 과정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장애이다. '늑혼(勒婚)'이란 유부남이거나 혼약이 있는 남성을 강제로 부마로 들이는 이른바 강제 혼인으로, 혼사 장애 모티프 중 하나이다. <윤지경전>은 이러한 '늑혼'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으로, 윤지경은 부당한 혼인에 끝까지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① 지경은 왕의 명령이 최씨와 자신이 이별하게 된 동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지경은 최씨와의 신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왕은 옹주의 신분상의 특수성을 근거로 지경의 잘못을 지적하며 최씨와 지경을 분리하고자 한다.
- ④ 지경은 옹주와의 혼인 기간이 짧은 것을 근거로 부당한 혼인을 취소해 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고 있다.
- ⑤ 지경은 옹주와 혼인하기 전부터 최씨와 혼인을 약속하는 등 어려서부터 최씨와의 인연을 지속하여 왔다.

18. <보기>는 <윤지경전>의 뒷부분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연 신세를 비탄하니, 최좌랑의 아들 선중이 나이 10세라. 따라다니다가 이 거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숙부는 어찌 이토록 우시나이까.”  
 부마가 답하여 가로되,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우노라.”  
 선중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묵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아니 이르리이까.”  
 지경이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을 네 어이 아는가.”  
 선중이 가로되,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본다 하고 죄다 감추었나이다.”  
 지경이 마음속으로 뜻밖의 일에 몹시 기뻐하여 즉시 종을 보내어 색부채와 필묵을 갖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중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소서.”  
 뒤를 따라가니, 동산 너머 두 집 지나 큰 집이 있어 대문을 잠갔거늘 동산 험문으로 들어가니 최 씨 바야흐로 종을 시켜 보거늘, 지경이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이 어인 일고.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인가. 초양왕(楚襄王)의 무산 구름\*인가.”  
 최 씨 역시 몹시 놀라며 감탄하여 눈물이 샘솟듯 하니, 모든 시비 이 거동을 보고 슬피 아니하는 이 없더라.

- \* 당명황의 봉래산 꿈: 당 헌종이 죽은 양귀비를 보고 싶어했다는 고사.
- \* 초양왕의 무산 구름: 초양왕이 무산의 선녀를 보고 싶어했다는 고사.

- ①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지경을 돕는 조력자가 등장하는군.
- ② <보기>를 통해 윗글에서의 최씨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보기>의 '색부채와 필묵'은 윗글에서 지경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겠군.
- ④ <보기>는 윗글과 달리 지경이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보기>를 통해 삼년상이 지나고도 지경의 최씨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비 : 고맙소, ㉠ 아무리 슬퍼도 내가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서 어찌 나라와 나라가 겨루는 일에서는 무서운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모르겠습니까? / 호동 : 어머니.

왕비 : 듣자 하니 내 아버지는 한 나라 어른답게 싸우다 돌아가셨다 하고, 내 어머니, 내 동생도 모두 지아비와 어버이를 따랐다 하니 어찌하겠소. 더구나 왕자는 싸움이 있기 전에 내 친정 나라와 싸움을 막고저 의논하는 걸음까지 다녀온 몸이니 어찌 내가 원망하겠소? 나는 그대의 어머니가 아니오?

호동 :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비 : 하늘의 뜻, 하늘의 뜻…… 왕자가 내 친정 나라에 가 있는 지가 아마 한 1년은 되었었지?

호동 : 그렇습니다. 가을에 가서 이듬해 늦여름에 왔으니.

왕비 : 그렇군, 우리 고장 좋은 사철을 다 지내셨군.

호동 : 어머니, 낙랑왕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비 : 우리 아버님이 잘 대접합니까?

호동 :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것처럼 즐거운 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말타기 활쏘기밖에 모르는 이 몸은 낙랑의 모든 살림이 꿈같았습니다.

왕비 : 낙랑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호동 : 정말 그렇습니다.

왕비 : 큰 강에서 뱃놀이도 해보셨소?

호동 : 네, 단풍놀이 겸해서 큰 뱃놀이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왕비 : 아름다운 놀이지요.

호동 : 네, 언덕의 단풍이 물빛에 어려서 참으로 대단한 구경거리더군요.

왕비 : 밤 뱃놀이도 좋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동생 낙랑 공주와 둘이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지요. 여름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지요. 아, 낙랑 공주, 인제는 다시 못 보겠군. (눈물을 흘리다가) 아니, 내가 이러자던 일이 아닌데, 왕자 더 말해주오, 낙랑의 이야기를, 우리 친정 나라의 이야기를 — 그래 내 동생도 왕자한테 살뜰하게 굶디까?

호동 : 네, 공주께서는 특히.

왕비 : 특히? 말해주오, 인제는 못 볼 사람들, 못 들을 사람들,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못할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오, 제일 마지막 그들을 만나본 왕자의 입으로 듣고 싶소, 그려 보고 싶소, 말해주오.

호동 : 말씀드리지요. 하루는 공주님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큰 변을 만났습니다. / 왕비 : 변을?

호동 : 네, 성을 벗어나서 그리 깊지도 않은 산속을 가는데 뒤미처 오던 공주의 외마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왕비 : 저런.

호동 : 달려가 보니 바로 머리 위 벼랑 끝에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더군요. / 왕비 : 저런저런.

호동 : 제가 화살을 두 번 쏘아 그 놈을 잡았습니다.

왕비 : 큰일 날 뻔했군.

호동 : 네, 그 일 때문에 공주께서는 이 몸을 고맙게 여겨주셨습니다.

왕비 : 그럴 수밖에. / 호동 : 몹시 놀라셨으니까요.

왕비 : (몸짓을 하며) 아 놀랐다, 이렇게 합디까?

호동 : (귀신을 보듯 물러서며, 와들와들 떠다)

왕비 : 왜 그러시오?

호동 : 오, 오, 낙랑 공주다, 낙랑 공주다.

왕비 : 공주? / 호동 : 공주다, 공주다. (다가선다)

왕비 : 아, 그 말이군, 내가 공주처럼 보인다는 말이군, 우리는 쌍둥이니까, 우리를 보면서 지낸 사람은 캄캄한 데서도 다 알아보지만 우리 둘을 나란히 놓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지요. 더구나 서로 버릇 흉내를 내면, 아 놀랐다! (또 흉내를 낸다. 교태를 부린 느낌 그대로)

호동 : 오, 공주, 공주, 내 사랑은 진정이었소,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지금도.

왕비 : (벼락 맞은 듯) / 호동 : 공주. (다가선다)

왕비 : (마음을 추스르며)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호동 : 그렇소. (한 발 더 다가선다)

왕비 : (물러나면서) 왕자. / 호동 : (멈춘다) / 왕비 : 왕자.

호동 : (꿈에서 깨듯) 오, 여기는, ……어머니, 네 어머니.

왕비 : 왕자는 내 동생을 사랑했단 말이오?

호동 : (뚝뚝히) 그렇습니다.

왕비 : ㉡ 인제야 왕자의 병을 알겠소.  
(중략)

왕비 : 자, (몸짓을 바꾸며) 이만하면, 줌, 왕자의 속이 풀렸소? / 호동 : (꿈에서 깨듯) 아, 너무, 너무.

왕비 : 알았소, 내 인제 왕자의 병을 알았으니, 내 할 일도 알았소, 나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가, 내가 자란 뜰을 거닐고 나니 하늘나라에 다녀온 듯싶소, ㉢ 왕자,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뵙시다. 그리고 뱃놀이, 사냥 하기도 나가봅시다. 아무쪼록 몸조심하고 왕자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인제 가봐야겠소, 아버님께서 기다리시니 가서 왕자님 얘기를 해드려야지, 아버님께서서는 궁금하실 테니까, 먼 나라에서 온 나라의 왕자가 어떤 분이신지. (웃는다)

왕비 나간다. / 왕자 배웅한 몸짓대로 서 있다.

호동 : 그때도 저렇게 가더니, 웃으면서,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야 큰일이지, 어디서나, ㉣ 그 첫날의 환대는 그런 것이었지, 그러나 호랑이를 잡은 다음부터는…… 모든 손님이 호랑이를 잡지는 않았을 테니…… 거기서 더 다른 일만 없었더라면 그렇지, 정들었다고 말을 하지 말아주었다면.

걸어다닌다, 가끔 머리를 짚는다, 답답한 듯이 나팔 소리 / 귀를 기울인다.

호동 : 저 고구려의 저 나팔 소리가 울리기 위해서는 낙랑의 북은 울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 북이 울고도 저 나팔 소리가 울릴 수 있었다라면, 그 북소리를 누르고 저 나팔 소리가 나갔어야 하는데 낙랑의 북아, 울지 못한 너, 너는 울고 싶었

겠지, 낙랑의 북아, 나 또한 지금 와서는 너의 마음과 같다. 너를 울게 하고, ㉠ 네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나팔을 울렸어야 했을 것을, 그랬더라면 내가 사랑한 사람의 머리를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을, 낙랑의 북아, 네 소리가 듣고 싶구나, 내 원래 너를 두려워 않았노라, 다만 내가 거느린 내 아버지의 군사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이었지, 왕자이고자 하면, 군의 사령관이고자 하면, 나는 정정당당치 못한 용사, 내 사랑하는 이를 찌먹은 비열한 자가 되어야 했구나, 낙랑의 북아, 네가 지키고자 한 사람의 손에 찢긴 낙랑의 북아, 내 네 소리를 듣기가 소원이노라, 네 소리를 따라 내 또한 한 번 하늘의 뜻을 물을 수만 있다면, 네 소리와 고구려의 나팔소리가 어울려 울리는 속에서 하늘의 뜻을 물어볼 수만 있다면, 낙랑의 북아.

- 최인훈, 「둥둥 낙랑둥」 -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내적 갈등을 대사를 통해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낙랑의 북소리를 삽입함으로써 핵심 상징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인물이 현재 위치한 공간과 상상으로 거니는 공간을 무대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 ④ 반복적인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면서 등장인물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의인화된 대상과 인물 사이의 교감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모국을 무너뜨린 나라의 왕비로 살아야 하는 비통한 처지이지만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② ㉡: 그간 '호동'이 승전에도 불구하고 '낙랑 공주'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다.
- ③ ㉢: '호동'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함께 낙랑국을 다시 방문하여 국왕 부부에게 용서를 얻는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제안하는 말이다.
- ④ ㉣: 첫날의 환대에서 '낙랑 공주'는 '호동'을 예사로 대했지만 그가 호랑이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뒤로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낙랑 공주'가 북을 찢지 않고도 '호동'이 낙랑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다면 '낙랑 공주'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인훈의 「둥둥 낙랑둥」은 낙랑의 북소리를 제목으로 삼아, 그것이 환기하는 사랑의 충동에 들린 호동 왕자의 걱정을 잘 그려낸 수작이다. 최인훈은 기존의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이야기를 끝난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뒤집어놓고, 고구려 왕비와 낙랑 공주를 쌍둥이 자매로 설정해 현실과 꿈을 교란한다. 호동은 잃어버린 공주의 사랑을 찾기 위해 쌍둥이 자매인 왕비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과, 한 국가의 왕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 사이에서 분열을 느낀다. 이처럼 최인훈은 이 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을 대담하게 서사적으로 재편성하는 동시에 서정적으로 윤색하여 극적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 ① 낙랑국이 이미 패한 이후의 시점부터 시작해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군.
- ② '호동'은 '낙랑 공주'의 쌍둥이 언니이자 현재 고구려의 '왕비'를 통해 꿈과 같았던 과거를 다시 맛보는군.
- ③ '호동'에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낙랑의 북소리와 반대로 한 국가의 왕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버렸다는 데 대한 자책감을 환기하는군.
- ④ '왕비'를 통해 잃어버린 '낙랑 공주'와의 사랑을 잠시나마 되찾은 '호동'은 내적 갈등을 느끼는군.
- ⑤ 작가는 특히 고구려의 '왕비'를 두드러지게 변형함으로써 서사적 재편성과 서정적 윤색을 이루어내고 있군.

1. ④

[오답 풀이]

- ① 활용을 하는 용언도 관형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문장에서 '작은'은 관형어이다.
- ② '모든' 역시 수 관형사 맞다. 특정 개체들에 대한 수량 파악이 가능하므로, '모든', '여러', '온' 등은 수 관형사로 본다.
- ③ '내가'의 '내'는 '가'라는 조사가 들어올 때 특수하게 표현되는 이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형어가 될 수 없다.
- ⑤ '환경'은 체언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꽃 피는'에서 '꽃'은 관형어가 아니라, '꽃이 피는'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④

㉠에서 명사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절 "성규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생략된 성분으로 요구하지 않고, 종결어미가 쓰였으므로 긴 동격 관형절(㉡)에 해당한다. ㉢에서 명사 '밭'을 꾸며 주는 관형절 "넓은"은 '밭'을 생략된 주어로 요구하므로 관계 관형절(㉣)에 해당한다. ㉤에서 명사 '사실'을 꾸며 주는 관형절 "언론에서 밝힌"은 '사실'을 생략된 목적으로 요구하므로 관계 관형절(㉣)에 해당한다. ㉥에서 명사 '가능성'을 꾸며 주는 관형절 "이 햄버거들을 한 번에 먹을"은 '가능성'을 생략된 성분으로 요구하지 않고, 종결어미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짧은 동격 관형절(㉢)에 해당한다. 한편 ㉦에서 '맛있는' 역시 관계 관형절로 쓰이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3. ①

[정답 풀이]

- ① '빚뚫다'는 '빚뚫다'로 교체 한 번, '빚뚫타'로 축약 한 번이므로, 음운의 개수는 한 개 줄어들고 음운 변동도 두 번 발생한다.
- ② 동화 현상이 아니라 첨가이다.
- ③ '흙뚫치 - 흙뚫지 - 흙뚫치', 즉 탈락 이후 교체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 ④ 축약이 먼저 발생한다.
- ⑤ '괄약근 - 괄약근 - 괄락근'인데, 음운 변동은 두 번 발생하지만, ㄴ첨가가 있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하나 증가한다.

4. ⑤

[정답 풀이]

- ⑤ '눈이 붙었다, 진실이 숨었다.'등은 표현 상 어색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① 사동문으로 해당 문장을 바꿔 보자. '내가 동생에게 책을 읽힌다.'가 되므로, 자릿수는 하나 늘어난다.
- ② '사람들이 마을로 가는 길을 넓혔다.'라고 해 보자. 서술어 자릿수가 하나 늘었다.
- ③ 해당 문장은 피동문이다.
- ④ '박세리가 이름을 날렸다'는 '이름이 날았다'라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다. '날씨가 풀렸다.'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다.

5. ③

[정답 풀이]

㉠에서 '수른, 누는'은 각각 '술+은', '눈+은'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경우이고, '수저는, 썸는'은 각각 '수저+는', '썸+는'으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는 결합하는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보조사 '은/는'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국어에서도 '술은, 눈은', '수저는, 썸는'처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만의 특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에서처럼 중세 국어에는 '밭, 뜰, 꼬리'에는 어두에 'ㅁ, ㅂ, ㅅ'과 같이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자음군은 '쌀, 뚝, 꼬리'처럼 현대 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에서처럼 중세 국어에는 동일한 체언이 뒤에 오는 조사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조사 '이, 에' 앞에서는 '쌍'의 형태가 조사 '마다' 앞에서는 'ㅅ'의 형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조사 '이, 에, 마다'의 음운적 환경과 상관 없이 모두 '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④ ㉤에서처럼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의 형태이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ㅣ'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도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가'의 형태로 나타나 중세 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 주격 조사 '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처럼 현대 국어에는 연결 어미 '-어, -고'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두 용언이, 중세 국어에는 연결 어미의 개입 없이 이어진다. 또한 중세 국어의 두 용언이 연결 어미의 개입 없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 합성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①

[정답 풀이]

(가)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절대자적 존재인 '누구'를 감각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의 화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연 현상 그 자체 속에서 절대적 존재의 흔적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 ③ (나)는 누룩이 알맞은 바람과 물을 통해 술로 변화하는 현상을 묘사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민중의 희생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나)는 누룩이 발효되는 현상을 보다 세태적인 주제로 연결 짓고 있다.
- ⑤ (나)는 누룩이 발효되는 현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민중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7. ④

[정답 풀이]

(나)는 누룩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곧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것임을, 다시 말해 누룩의 죽음이 향기로운 술의 생성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는 민중의 희생과 고난의 극복이 새로운 시대를 불러올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답 풀이]

- ① 회의적 자세가 아니라 구도적 자세이다.
- ② (나)의 화자는 누룩이 발효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물음을 거듭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A]에서 설명하듯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시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의문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 ③ (가)는 '~는 누구의 ~입니까'의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구도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러한 탐구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의 화자는 스스로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자는 다만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발휘하여 절대자를 둘러싼 밤을 몰아내고자 의지를 다지고 있을 뿐이다.

8. ④

[정답 풀이]

(나)는 누룩을 이용하여 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민중의 연대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들의 저항과 실천에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로 빚어진 술은 긍정적인 역사를 상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누룩이 삭고 삭아 부서지는 과정은 향기로운 술을 빚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희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1970년대의 민중운동의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알맞은 바람'과 '좋은 물'이 정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민중 사이의 연대의식을 의미한다.
- ③ 화자는 누룩의 자기희생과 인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누룩 한 덩어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무력함은 주변의 여러 존재들과 합심하여 좋은 술이라는 결과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파된다. 따라서 이는 투쟁하기 이전의 상태일 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9. ③

[정답 풀이]

이세보의 「농부가」에서는 농사의 시기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시적 화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제1수에서는 정월과 이월에 할 일을, 제3수에서는 모내기, 제5수에서는 벼 이삭에 패는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따라 시적 화자는 근면성실할 것을 경계하는가 하면 농가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농부가>에서는 농가의 일상과 농촌 생활의 어려움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시적 화자는 「농부가」 전 12수에서 시종일관 유교적 사회 질서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농부가」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맞지만,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시적 화자가 농부를 바라보는 태도는 시종일관 교화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농부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②

[정답풀이]

② 올 가을도 봄처럼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일 뿐, 자연 친화와는 연관이 없다.

[오답풀이]

① 제1수를 제외하고는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이 제시되는데 모두 화자의 판단이 제시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5수의 종장인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는 성화(聖化)신가’에서는 ‘때맞추어 비가 내리는 것도 임금의 덕인가’라는 설의적 질문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9수에서는 ‘그딤 농스 적을 적의 닌 추수(秋收)인들 변변헐가’라면서 그대의 농사(추수)가 적을 때 내 추수 역시 변변할까?’라면서 추수를 했어도 박부자 집의 빛을 갠고 나면 자신의 몫을 얻을 것이라는 농부의 걱정스런 모습이 담겨 있다.

④ 각 수의 종장에서는 시조의 일반적인 끝맺음 형식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 음보를 생각하고 있다. 이는 「농부가」가 조선 후기의 새로운 창법인 시조창 방식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제1수에서는 정월과 이월에 농부들이 할 일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종장에서는 며느리의 게으름을 타이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농부들에게 농사에 힘써야 한다고 훈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1. ⑤

[정답풀이]

⑤ 윗글과는 달리 <보기>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는다.

<보기>에서는 청유형 어조를 통해 농부들에게 농사를 격려하고 있다. 윗글 「농부가」에서도 역시 농부들에게 농사를 격려하고 있다. 하지만 「농부가」 제1수에서는 며느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신칙(申飭)한다’라면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윗글 농부가에서는 청유적인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보기>에서는 청유적인 어조가 드러나면서 이를 통해 농부들을 독려하고 있다.

② 윗글의 제9수에서는 추수한 뒤에도 빌린 돈을 갠는 다음에는 농부의 몫이 없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만을 통해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기>와 윗글 모두 농부에 대한 시적 화자의 교화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와 윗글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12. ①

[정답풀이]

① <보기2>에서는 마지막 3수에 나오는 절약, 수신, 지족, 안빈낙도 등의 자세로 고통을 이겨내면 복이 올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1>에서는 농민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농민들은 그저 고통스런 현실을 감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며 이를 비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시적 화자는 작금의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유교적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농부와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시적 화자는 농부를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시적 화자는 유교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적 화자의 삶의 자세가 농촌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보기1>을 통해 유추하기 어렵다.

④ <보기1>에서는 절약, 수신, 지족 등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농부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다.

⑤ <보기1>은 봄부터 수확까지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치 않다.

13. ④

[정답풀이]

이 작품은 전쟁 직후 가난하고 비참한 도시의 어두운 면면을 사실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 갈등이 중심은 아니다.

② 죽은 여자가 중심인물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병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몽환적이지 않고 대단히 사실적이다.

⑤ 역순행적 구성이나 인물의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④

[정답풀이]

“그녀는 이제 썩은 열매를 더 이상 취하지도 팔지도 않을 것이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도시로 전학을 간 자신을 얼마든지 친구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에 기대를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정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우리 뒤를 쫓아올 수 있으리라”는 말로 보아 ‘나’는 고향과 도시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에 실망감까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어머니는 아예 손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는 묘사에서 강한 모성애를 읽기는 어렵다.

⑤ “발치쯤에 버려져 있던 함치박과 두어 알의 사과를 나는 또 생각”했을 뿐이다.

15. ②

[정답풀이]

② 물장수의 물이나 집안에서 먹는 물이 온통 오렌지 빛인 것은 수도 시설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감과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새로 온 동네의 풍경도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지만, 고향에서 그간의 삶을 함께 했던 세간살이마저도 “지금까지 흔히 보고 느껴오던 바와는 사뭇 다른 모양이요, 빗깍”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③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속이 메스껍고, 맥퐁린 하품이 나오는 것은 모두 구토로 표출되기 이전까지의 ‘나’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④ 공원 관리인은 죽은 여자를 늘 공원에서 보아왔고, 지금은 동사자가 속출하는 겨울이며, 그녀 역시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놀라지 않는다. 이러한 사무적인 태도는 ‘나’가 도시로 이사를 온 후 겪은 도시의 삶이 얼마나 메마른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⑤ “그녀는 언제나 썩은 사과를 먹고 있었다. 불결한 손가락 끝으로 향시 썩은 부위만 열심히 후벼서 과묵곤 했었다. 그 밖의 다른 아무것도 그녀는 취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물밖엔 거의 아무것도 취하지 않듯.”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썩은 사과만 먹다가 죽은 여자를 통해 현재 물만 마시며 간신히 살아가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절망적이라는 기분은 ‘나’에게 메마른 허구역질을 일으킨다.

16. ③

[정답풀이]

박씨는 용주를 통해 지경이 자신의 딸인 용주를 박대하고 최씨와의 만남을 지속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박씨는 최씨를 지경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경을 벌줄 것을 왕에게 청하고 있다. 따라서 박씨가 문제의 원인이 지경이 아닌 최씨라고 판단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용주는 자신이 임금의 딸로서 지경과 혼인한 것을 들어 지경의 자신을 천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혼인을 하지 않은 도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 자신을 부마로 선택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이 부당함을 들어 용주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 ④ 왕은 지경의 지적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간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왕의 권위로써 용주를 박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 ⑤ ‘중략’ 이전 부분에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경과 박씨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7. ④

[정답풀이]

<보기>에서는 고전소설의 혼사 장애 모티프에 대한 설명과 <윤지경전>의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윗글의 ‘용주 신에게 온 지 겨우 일 년에 남편의 뜻을 모르고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탈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에서 지경은 용주의 투기를 근거로 왕에게 용주를 비난하고 있을 뿐, 혼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奠雁)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합친을 못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용주를 맡기시니’에서 지경은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최씨와 자신이 이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용주를 대접하고 최씨를 다른 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교배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에서 지경은 신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씨와 쉽게 이별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네 아넌죽 용주요 여염 필부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이어늘, 네게 최씨와 퇴혼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위법하는가.’에서 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왕의 딸이라는 용주의 신분상의 특수상을 근거로 하여 지경에게 최씨와의 이별을 강요하고 있다.
- ⑤ ‘최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사오니 어찌 비상지원(飛霜之怨)이 없지 아니하오리까.’에서 지경이 어려서부터 최씨와의 인연을 지속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아비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奠雁)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에서 지경이 용주와 혼인 전부터 최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18. ④

[정답풀이]

<보기>에서는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 ‘초양왕(楚襄王)의 무산 구름’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경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윗글에서는 ‘아황과 여영’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경이 박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윗글> 모두 지경이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최좌랑의 아들 선중이라는 조력자가 존재한다.
- ② <보기>에서 지경과 최씨가 조우하는 장면을 통하여 최씨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윗글에서 지경은 최씨와의 이별로 인하여 설움을 느끼고 있으며, <보기>에서 지경이 선중에게 ‘색부채와 필묵’을 가져다줌으로써 지경이 최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 ⑤ 윗글에서 최씨가 죽고 삼년상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보기>에서도 지경은 최씨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19. ①

[정답풀이]

마지막 호동의 대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낙랑의 북소리가 핵심 상징물이기는 하나, 인물들의 대화중에 북소리가 삽입되지는 않았다.
- ③ 특정한 무대 장치는 언급되지 않으며, 나아가 내용상 인물이 현재 위치한 공간과 상상으로 거니는 공간은 가능한 한 경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 ④ “오, 오, 낙랑 공주다, 낙랑 공주다.”와 같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인물의 심경이 강조되는 대목은 있으나, 위기가 고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호동이 낙랑의 북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그것과 교감을 이루거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③

[정답풀이]

“듣자 하니 내 아버지는 한 나라 어른답게 싸우다 돌아가셨다 하고, 내 어머니, 내 동생도 모두 지아비와 어버이를 따랐다 하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낙랑국의 국왕 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은 왕비가 자신이 낙랑 공주인 척을 하며 호동과 함께 과거를 재현하면 호동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보자는 제안이다.

[오답풀이]

- ① 호동의 왕비는 실제 호동의 어머니가 아니라 낙랑국에서 온 낙랑 공주의 언니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왕비의 입장에서 호동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나 왕비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호동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다.
- ② 이제야 호동의 병을 알겠다는 왕비의 말은 그간 호동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은 알았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낙랑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짐작이 간다는 의미이다.
- ④ 왕비에게 고한 호동의 이야기를 통해 호동이 낙랑 공주를 호랑이로부터 구해준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을 통해 그날부터 낙랑 공주는 호동을 예사 손님과는 다른 존재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낙랑의 북은 본래 고구려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지키고자 한 사람의 손에”, 즉 낙랑 공주의 손에 북은 찢겨 낙랑국은 결국 패하고 국왕 일가도 모두 죽게 되었다. 호동은 이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면서, 차라리 북이 울려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하고 그것에서 승리했다면 낙랑 공주도 죽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1. ③

[정답풀이]

호동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낙랑 공주를 구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오답풀이]

- ① 본래의 설화는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이 작품은 <보기>에서 설명하듯 그들의 사랑이 모두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고 있다.
- ② “왕비: 자, (몸짓을 바꾸며) 이만하면, 좀, 왕자의 속이 풀렸소? / 호동: (꿈에서 깨듯) 아, 너무, 너무.”라는 대목에서 드러나듯, 호동은 왕비의 재현을 통해 현실과 꿈을 넘나들며 낙랑 공주와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다.
- ④ 왕비와의 역할극을 통해 호동은 낙랑 공주와의 사랑을 강하게 회상하고, 뒤이어 고구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분열하게 된다.
- ⑤ 낙랑 공주의 쌍둥이 언니가 고구려의 왕비로 오게 되었다는 설정이야말로 현실과 꿈, 사랑과 원칙의 갈등에 관한 핵심적인 서사적 재구성과 서정적 운색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